

The Cosmopolitan(세계시민주의자) – Korean Translation

네브래스카 대학교 코스모폴리탄 클럽 연례회의 연설에서 한국 학생 헨리 정(정한경)

아마도 모든 학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인간에 관한 학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시민주의자(Cosmopolitan)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세대의 후예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는 보편적인 성품(이것은 모든 세대와 모든 이들이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과 공정한 기질(공평함과 편견 없는 태도로 모든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균형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덕성은 어느 민족의 기준으로 보아도, 즉 기독교인들에게나 무슬림에게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점은 그가 지적으로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줄 안다는 점에서 우주적(cosmic)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알고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기준으로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뉴잉글랜드의 현명한 농부가 하버드의 존 그레이엄 브룩스(John Graham Brooks) 교수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브룩스 교수는 그의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합니다. “음, 브룩스 박사님,”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제가 알려드리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연관된 사실들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한 가지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브룩스 교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농부의 정의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들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동료들과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 간의 지리적 고립 또는 국가적 분리라는 사고는 시대에 뒤쳐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집에서 짠 옷을 입으며 마차를 타고 여행하던 시절처럼 세상과 떨어져서 따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공통의 이익과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이 함께 번영하거나 함께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명은 세계의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채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다른 민족과 국가가 뒤쳐져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계몽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현대 과학은 누구도 지저분한 공동체에서 위생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함께 살면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술과 과학은 다른 사람

들에게 나누어 줄 때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동기로 섬길 때, 우리는 더욱 고상한 노력을 위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받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선진국의 가장 중대한 과업은 작은 나라나 열등한 민족을 정복하여 주먹으로 훈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빛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인종에 따른 귀족정 또는 군사적 지배를 옹호하는 행위는 전쟁, 증오, 메마른 배타성, 그리고 최종적 퇴보와 실패를 의미합니다.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사랑, 우정, 희생, 새로운 무익함, 더 넓은 믿음과 최종적인 승리를 향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세계인들은 점점 더 큰 단위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부족으로, 부족은 국가로 통합됩니다. 이제 하나된 세계를 위한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들이 하나의 단위로 조직하고, 모두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지역 이익을 포기하고, 명예와 평등의 측면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위대한 운동에서 세계시민주의자는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조상들이 가졌던 증오나 오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봉사와 형제애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특별한 종교적 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렇듯이 국가적 또는 인종적 경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명예와 평등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유용한 노동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사회적 관습을 존중하지만 그것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의 진정한 시민입니다. 그는 프로이센의 군국주의를 싫어하면서도 독일의 효율성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독재를 싫어하면서도 톨스토이의 신념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국 제국주의를 비난할 수 있지만 셰익스피어와 로버트 브라우닝을 사랑합니다. 그는 세계 민족의 모든 훌륭한 자질들을 모아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피우는 매개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세계시민주의자는 강인하고 이타적이며 사회적 우아함과 지적 성취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뛰어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매너와 지적인 우아함 이상으로 세계시민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생활이 단순하고 자신의 시각에 있어 항상 겸손하며 무엇보다도 배울 줄 압니다. 그는 모든 진실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그는 미국만의 진리, 튜턴만의 진리, 라틴만의 진리, 아시아만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보편적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는 증오하기에는 너무 높고 정복하기에는 너무 광활할 정도로 위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에 하기 원하는 대로 자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하기를 희망합니다. 전쟁의 모든 욕망, 사소한 논쟁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현대 상업주의의 광란의 부 가운데, 그는 진정한 코스모폴리타니즘, 국가의 연합, 인간의 형제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용

감하게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입니다. 테니슨(Alfred, Lord Tennyson)은 반세기 전에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미래에 깊이 뛰어들었을 때, 세상의 비전과 그 안에 있을 모든 경이로움을 보았다.

사람들, 나의 형제들, 그리고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을 해낼 것이다.

그것은 지금껏 해온 일이지만 앞으로도 그들이 진정 이뤄낼 일들이다!

전쟁의 북소리가 더 이상 울리지 않고 전투 깃발이 걷힐 때까지,

인류의 의회, 세계 연방에서.”

번역: 유주영, 번역일: 2022년 8월 27일